

47 불순종의 사람 사울

Chapter

삼상 13, 15장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68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심을 압니다.
2. 신앙생활의 출발도 중요하지만 결말은 더욱 중요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내가 농사일을 도울 힘센 소를 구하고 있는 농부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위의 두 소 중 한 마리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소를 고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보다 ()이군요!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크게 고통받던 시기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했던 사울은 어느 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삼상 9:21)”라고 겸손히 대답합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여 암몬 사람을 격파한 후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림으로서 제사장직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접하였으며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떠납니다. 그 후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여생을 허비하였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은 후 블레셋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좋았으나 불순종과 회개치 않음으로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Then Samuel said: Has the LORD as great delight in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As in obeying the voice of the LORD?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than the fat of rams (1 Sa 15:2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대상 10:13~14)

(사 48:17~19)

(시 81:8~13)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사울의 첫 번째 범죄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린 일입니다.
이 일은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일어났는지 사무엘상 13장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2. 그 후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을 기록해 봅시다.
3. 성경을 보면 사울은 범죄 후 여러 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삼상 15:24, 19:4~6, 24:16~22, 26:21). 그의 회개와 다윗의 범죄 후 회개(삼하 12:13)는 어떻게 다른지?
4. 삼상 31장 3~5절에는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선택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는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붙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잘못을 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을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저절로 생겨날 확률

과학자들은 지구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오더니

쌓여 있던 건축 자재들을
휩쓸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척! 척!
조립되더니

집 한 채가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지구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이것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고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히 3:4)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 40:26)

군목(군대의 목사)의 불순종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살레모(Salemo)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육군 상사가 보니 군목이 위험한 지역인데도 옳드려 통과하거나 뛰지도 않으며 그냥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군목에게 소리쳤습니다.

“군목님, 그렇게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그러자 군목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상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법칙에 제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